## 김준의 갯살이

# 섬마을 학교를 살려주세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막내딸이 "아빠"하면서 달려와 손을 잡고 문구점으로 끌고 간다. 제 키 반만 한 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리나케 놀이터로 달려간다. 모래를 퍼서 요리를 만든다며 바구니에 정성껏 담아 놓고 미끄럼틀로 올라가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리고 쭉 내려온다.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며칠 전 완도의 한 섬에서 만났던 초등학생들이 생각났다. 그동안 20여 년 섬을 다니면서 작은 섬에는 장난감은 물론 이렇다 할 놀이시설이 없는 것을 보아왔기에 섬마을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놀까 궁금했다.

하지만 객선에서 내려 아이들을 보는 순간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선창에 정박해 놓은 배를 징검다리 마냥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양식장에 사용하는 어구를 사다리처럼 오르내리기도 했다. 모든 것이 놀이시설이고 장난감이었다.

상품화된 장난감과 정형화된 놀이시설에 익숙해 있던 나로선 부끄러운 생각이 앞섰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다.

그곳에 아이들은 모두 10명이었다. "몇 학년들이니" 묻자 각각 학년들을 말해 주었다. 4학년만 없었다. 6학년이 4명이었다. 섬에 학교가 있냐는 내 질문에 아이는 손에 든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우리 섬에 중학교도 있어요. 근데 곧 폐교된대요"라며 대답을 했다.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니"라고 하자 "당연하죠"라고 했다.

섬사람들의 교육열은 뭍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섬에 학교가 없었던 작은 섬에서는 새벽밥을 먹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를 저어 학교를 보냈다. 1960년대 여수 가장도의 모녀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다. 작은 섬인 가장도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6년 동안 엄마가 노를 저어 등하교를 시켰던 이야기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되는데 폭풍우로 뱃길이 끊길 때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어떡하던지 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갱번에서 미역을 뜯고 전복과 소라를 팔아 부지를 마련하고 온갖 연줄을 동원해 학교를 유치했다. 섬주민들이 모두 나서 모래와 자갈을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어 학교를 지었다.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 둘 섬을 떠났다. 그리고 학교는 하나 둘 폐교로 바뀌었다. 완도의 한 섬은 분교를 노인당으로 만들었다. 신안의 낙도분교는 마을 펜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10여 가구만 넘게 거주하면 대부분 분교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폐교가 되었다. 운 좋게 남아 있어도 학생 수가 10명이 넘지 않는다. 심지어 면 규모의 큰 섬도 초등학생 수가 20여 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도 찾기 어렵다.

초등학교 중에는 한두 명의 학생을 붙잡고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으려는 섬마을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는 곳도 있었다. 이들이 학교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영영 섬을 찾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노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어장이 좋거나 양식어장이 좋아서 고향으로 U턴해 온 젊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만의 의미가 아니다. 그곳에는 섬의 미래가 섬의 가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

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온 날 자꾸만 6학년 아이의 음성이 귓전을 울렸다. "싸이에 가면 언니가 올렸던 글이 있어요. 중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해달라고" 밤 늦은 시간 책상에 앉아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섬에 살고 있는 3학년 아이가 올려놓은 글이었다.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도 따 먹고 쑥을 캐서 쑥전도 해먹고요. 나물 캐서 비빔밥도 먹고, 밀도 직접 재배해서 구워 먹고, 저희는 학교에서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꼭 폐교되지 않게 해달라는 구구절절하게 올려놓은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따뜻하고 추억이 많은 학교를 후배들도 꼭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희망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교는 우리가 꿈꾸는 학교가 아니던가. 콩나물 같은 교실과 학원을 전전하다 집에 와서는 온갖 학습지와 숙제에 시달리다 지쳐서 곯아떨어지는 도심 속 아이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 폐교되어야 하고 어느 쪽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머릿속에는 섬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들어 있다. 섬에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사설

# 지역정치권, 국고예산 확보 발벗고 나서라

전남도의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 요청액 가운데 절반이 정부 부처 계획에서 누락,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중 전남도 현안사업 예산 반영 규모는 4조48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국고예산사업이 370건에 8조126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F1대회 지원 운영비 240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TV중계권료 면제 등 수지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적자 탈출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또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1000억 원도 누락됐다. 총사업비 2조3262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해 이어 1000억 원을 재차 요구했지만 1차 관문부터 외면받은 것이다.

이밖에 압해~화원간 도로 개설 100억 원, 무안공항~순천 중동부권 도로 개설 200억 원, 보성~임성 철도건설 사업비 1498억 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과거에도 되풀이 해온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논리로 무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투쟁을 해서라도 살려낼 필요가 있다. 또 협상과정에서 여당의 핵심 예산을 압박하면서 가능성 있는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열악한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 예산 반영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다.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이 지역 예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도소 이전부지에 구치소 건립 안 된다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광주교도소 일부 부지에 구치소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교도소 부지(10만8423㎡) 중 3분의 2 가량을 법무부가 무상양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곳에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기본용역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호남지역에 구치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다 미결수와 기결수를 교도소에 함께 수용하면서 미결수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점을 들어 나머지 부지에 구치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등이 건립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는 반대 건의안을 1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기 내에 채택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야 대표 등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지역위원회는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는 시의회와 지역위원회의 이러한 반대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시민들이 끌려가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고, 공수부대가 주둔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구치소가 들어서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 할 곳에 구치소가 양존한다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건립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전되는 광주교도소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 북구 삼각동 28만7512㎡의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구치소를 마련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이전 부지는 기존의 교도소보다 2.7배나 넓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시민의 반대와 지역 정서를 고려해 삼각동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도 구치소 논란을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종고칼럼

# 개가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 이유

김성근

요즘 개들은 도둑을 보고도 짖지를 않는다고 한다. 왜 안 짖을까?

이 나라 대통령 주변의 지인들이 평소 권력을 통하여 저지른 비리가 이번 MB정부도 지나치지 못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비리를 저지른 개인 당사자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보다 주변 이권 집단들의 간교한 술책에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계 지인들의 권력비리가 대통령 임기 말에는 매번 나타나 본인들의 굴욕은 물론이요. 온 국민의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해 왔던 것을 역력히 보지를 않았는가!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MB정부의 실세 3인방 모두가 사법처리되었다. 이제는 국민들도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 같다. 역대의 모든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의 계산들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요즘 개들은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경우일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부러울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권력을 통한 비리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법원 등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 가끔 언론을 통해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표현들을 접하곤 한다. 이 나라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죽은 권력도 없다. 권력 자체가 국민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검찰도 법원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하여 저지른 비리야말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매번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계지인들의 비리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권집단의 술책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고 남용하는 데는, 권력의 본질인 국민을 무겁게 알지 않는 다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과거가 역력히 증명을 했고, 우리가 실지를 보아 왔다. 앞으로 시대는 권력 가진 강자가 강자 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그간 강자의 요건은 정보를 많이 획득해 있고 돈(재원)이 많이 있으면 강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정보도 돈(재원)도 대중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강자라 할 수 없다. 개개인의 작은 모습을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개개인의 작은 모습들은 현명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 다만 대중에 있어서 명분과 대의가 필요할 때는 놀라운 지혜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요즘 19대 국회에서는 그간 누렸던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번 연말 대선을 위해서는 그간 대중들이 잘 알지 못했던 많은 특권들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등은 늘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에 근원 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권을 통하여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 했다. 오늘날 정치에 있어서 권력은 대중을 먹여 살리는 양식과도 같은 것이다.

〈원불교 풍암교당 교무〉

## 기고

#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폴리 만들기

홍인화

지난 달 말 지역문화교류재단 주관으로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폴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과 위치 선정'이었다 할 수 있다.

광주폴리는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광주읍성터와 푸른길 공원에 11개의 폴리를 설치했다. 폴리(folly)는 프랑스 건축가 베르나르 츄미가 라빌레트 공원에 설치한 35개의 작은 시설물을 폴리라 일컬으면서 건축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광주폴리는 원래의 폴리개념을 넘어 공원에서 도시공간으로 확장되었고 폴리 하나 하나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휴식, 전시, 공연,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간의 폴리에 대한 담론을 정리해 보면 광주폴리가 시민들의 입살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폴리를 설치하는 사업 자체 보다는 사업추진의 미숙함에 있다. 참여 건축가들의 명성에만 기대어 장소선정에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폴리설치 장소로 선정된 광주읍성터는 광주 도심의 원형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광주의 얼굴이다. 폴리를 통한 읍성의 현대적 복원은 시민들의 동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특히나 이곳은 중심상업지역으로 폭이 좁은 도로, 옥외광고물,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 복잡한 지역이다. 어떤 형태의 작품이 들어설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설치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낙서로 인해 작품이 훼손되는 등 폴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부족하고 이해도도 낮다. 더욱이 시민들에게 폴리에 대해 알리고 관광문화 자원으로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예산부족으로 마케팅은커녕 유지관리도 어려운 상태이니 설상가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시민과 공감하는 폴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어떠한 폴리를 누구에 의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예술가-전문가-행정이라는 일방통행에 의해 결정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 관련단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폴리를 통해 지속적 문화자산을 축적하여 다양한 문화 아이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폴리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폴리를 설치하는 장소선정 및 폴리 아이템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하나로 폴리 설치 장소의 하나로 광주의 관문에 폴리사업을 적용하여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지금 세계의 도시는 이미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인권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5·18 항쟁과 기록문화도시를 국제화에 맞게 상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光)산업 도시', '비엔날레 도시'라는 좋은 소재가 있고 예향(藝鄕), 의향(義鄕), 미향(味鄕)의 도시로서 많은 스토리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관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첫 인상을 갖게 된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예술성과 실용성이 높은 작품을 설치하여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봄은 어떨까?

〈광주시의원〉

## 無等鼓

# 대군과 만사형통

대군(大君)은 조선시대 임금의 정궁(正宮·본 부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대군들 사이에선 왕권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졌다. 보통은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왕의 형이 되는 대군들은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늘 경계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현명한 대군들은 궁궐로부터 멀리 떠나 권력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곤 했다.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동생 충녕(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자 스님이 돼 세상을 등졌다. 그는 번뇌를 잊기 위해 북가죽이 늘어나도록 북을 쳤다. 축 처진 모양을 빗대 '효령대군 북가죽 같다'라는 속담이 생겼을 정도다.

큰 아들 양녕대군도 한양을 떠나 살았다. 신하들은 양녕에게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격렬하게 탄핵했다. 양녕이 68세에 죽자 사관들은 "세종의 우애가 지극했고, 그(양녕) 또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 시종(始終)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조선시대 대군들은 동생이 왕이 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들은 권력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다 구치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대우건설 사장 연임 청탁, 농협중앙회장 관련 로비 등으로 뒷돈을 챙기다 사법처리됐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저축은행 오너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영일대군'이란 호칭을 가진 이 전 의원은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은 형과 통한다)'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의원이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만사흉통'이란 비아냥이 터져나오고 있다. 병을 핑계로 가슴을 싸매고 걸어나오지 못하도록 '만사법통'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 증권방송 주식고수들 투자 현혹 발언 자제해야

얼마 전 텔레비전의 한 인터뷰에 경력 20년이라는 증권사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케이블 TV 증권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가 회사 이름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100% 들어맞을 수 없잖아요. 잘못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방송출연을 고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에 나갈만한 진정한 실력도 갖추긴 했지만 자칫하면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만 믿고 그의 투자 설명과 방송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믿고 투자할 경우 졸지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에 안 나갔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요즘 변변찮은 경험과 얕은 지식만으로 당당히 방송에 출연해 개미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인터넷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사람이 심지어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세력화해서 말을 만들고 조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특정 주식을 매집한 뒤 그 주가가 올라가도록 각종 시세조종발언을 하는 식이다. 또한 자신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도 한다.

온라인 개인방송 사이트에는 수십 명의 자칭 주식 고수들이 오전만 해도 몇 십 개의 방을 만들어 소액투자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 방송이다 보니 비속어까지 나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그러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증권방송에서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시청자나 네티즌을 현혹시키는 방송 발언과 시세 조종을 의심케 하는 투자 판세분석은 방송을 제작하는 쪽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FAX 227-9500〉 | 〈FA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기획사업국 2200-555 | 〈FA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